

차별화로 성장 동력 강화·패키징 주목

불황 속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 및 타 제품과의 차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했던 출판인쇄물의 빠른 감소는 패키징 분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남과 다름으로 견인하는 선택

인쇄품질의 상향평준화는 인쇄수요자의 눈높이를 높여 놓았으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법에 대한 요구도 창출했다. 인쇄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업체는 분명이 있다. 경쟁업체 및 여타 제품과 분명히 다른 장점을 보유한 업체가 그렇다. 남과 다를 때 유리한 조건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인쇄업계는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몰라 아직까지는 많은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격정책인데, 이는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적용하기에는 해당업체와 업계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크게 추천할 만한 것은 못된다.

전통적인 수주업체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로 진화하거나, 남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술이나 응용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발주업체와 갑을관계가 아닌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응용 한계 무한한 패키지

미디어의 다양화와 스마트미디어의 출현은 전통방식의 인쇄문화산업에 많은 충격을 줬다. 하지만 미디어의 진화에도 수요가 대체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바로 패키지다. 더구나 기술의 발달로 패키지 분야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응용이 개발되고 있다. 패키지 산업이 인쇄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성장 분야로 주목받는 이유다.

무한한 패키지 응용은 상품의 다양화와 경쟁 심화의 부산물로 볼 수도 있다. 기존에는 미디어 속에 투영되는 첫인상을 통해 상품의 호감을 키우고, 상점에 방문하기 전부터 구매의사를 결정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패키지 디자인의 호감도에 따라 상점 내에서도 원래 구매하려던 상품을 변경하기도 한다. 그만큼 미적으로 아름답고 주목도를 끄는 패키지의 중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다만, 패키지 인쇄는 일반 오프셋인쇄기가 아닌 대형포맷 인쇄기나 그라비어, 플렉소 인쇄기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하지만 패키지의 수요와 성장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미래 전망도 밝은 만큼 이 분야에 뛰어드는 인쇄인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